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새 시즌 새그림 그린다

미디어데이 행사...센터백 日 시미즈 아이카·김금정 선수 등 4명 영입 24일까지 경남서 전훈...27~29일 서울서 SK와 연습경기로 전력 확인

새 시즌을 앞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이 새로운 선수들과 합맞추기에 나섰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은 20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영입선수들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2010년 창단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선수단은 하위권에서 시작해 점차 성장하며 저변을 넓혀왔다.

2020-2021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정규리그 4위, 포스트시즌 3위를 달성했고, 2021-2022시즌 예선 정규리그 2위와 더불어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13승 5무 3패로 정규리그 2위, 포스트시즌 3위를 달성했다. 또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는 8강에서 인천을 꺾고 동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새로운 선수들과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

센터백 강경민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지난달 7일 SK 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했다. 골키퍼 손민지와 피봇 박세림, 레프트윙 나지현 등 3명도 계약종료로 빠졌다.

4명의 선수가 빠지면서 도시공사는 새로운 선수 4명을 영입했다. 일본에서 온 센터백 시미즈 아이카를 포함해 센터백 김금정, 피봇 이한솔, 피봇 박지호가 도시공사로 들어와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 피봇 이한솔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는 피봇 원선필의 공백을 메운다.

원선필은 지난 시즌 SK와의 경기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현재 재활 중이다. 그는 컨디션을 회복한 뒤 2라운드부터는 동료들과 함께 뛰며 경기력을 높일 예정이다.

도시공사의 첫 외국인 선수인 시미즈 아이카는 오이타고를 졸업하고 무코가와 여대에서 뛰었다. 키 151cm로 신장이 작은 선수지만 타고난 경기 센스와 스피드가 강점이다. 2002년생 시미즈 아이카는 언니들의 애정 속에 한국 핸드볼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이번 영입으로 한국을 처음으로 오게 된 그는 "한국의 핸드볼 경기가 좋아서 오게 됐다. 언니들이 다 착하고 잘해준다.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센터백 강경민을 놓아주며 생긴 공백을 수비력 강화로 메울 계획이다. 선수들도 그동안 강경민에게 의지했던 분위기를 전환해 보다 주체적으로 시즌에 임하겠다는 목표다.

레프트백 정현희는 "동료에게 기대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오세일 감독은 "그동안 강경민 선수가 잘해준 것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팀의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잘해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격 기회를 강경민에게 많이 줬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선수들에게도 '너희들이 다 주인

새 시즌을 향해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이 20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라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 "강경민 선수의 자리를 김금정 선수가 맡고 있다. 김금정 선수도 지금 실업 5년 차 정도 됐는데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공사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전지훈련을 위해 이날 경남 진주로 떠났다. 경남개발공사, 대구시청, SK와 함께 4일간 훈련

을 소화하는 도시공사는 27-29일 서울로 이동한다. 선수단은 SK와 서울시청과의 경기를 통해 팀 전력을 확인하고 손발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우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5월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높이뛰기 남자대학·일반부 결승에서 2m32를 1차시기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 2연패 도전

세계육상연맹 내년 일정 확정...9월 브뤼셀서 '높이뛰기' 파이널

2024년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진출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은 현지시간으로 내년 9월 13~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024 파이널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다이아몬드리그 조직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다이아몬드리그 종목별 일정을 공개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다이아몬드리그는 2024년에 총 15개 대회를 치른다.

14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로 순위를 정해 '챔피언십' 격인 15번째 브뤼셀 파이널 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남자 높이뛰기를 평선한 대회는 4월 20일 중국 샤먼, 4월 27일 중국 쑤저우, 7월 12일 모나코, 7월 20일 영국 런던, 8월 25일 폴란드 실레지아, 8

월 30일 이탈리아 로마 대회 등 총 6개다.

개별 대회 1~8위는 승점 8~1점을 받는데, 남자 높이뛰기는 총점 상위 6명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 자격을 얻는다.

우상혁은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20점으로 4위를 차지해 6위까지 얻는 파이널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고, 9월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파이널에서 2m35를 넘어 우승했다.

당시 우상혁은 "다이아몬드리그 모양의 우승 트로피를 드는 건 내 인생 목표 중 하나였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뻐했다.

2024년 우상혁은 '디펜딩 챔피언' 완장을 차고 다이아몬드리그 경기를 치른다.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2연패를 달성한 점퍼는 무타즈 예사 바르심(2014~2015년·카타르)과 장마르코 템베리(2021~2022년·이탈리아), 단 두 명뿐이다.

우상혁은 "내년 현지시간으로 8월 10일 오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리 올림픽 결선이 열린다"며 "지금은 파리 올림픽 결선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자, 집중하고 있다. 아직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리그는 육상 선수들이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다.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2연패를 달성하면 2024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2연패를 향한 의욕을 드러냈다.

4주 동안 대만 가오슝에서 훈련한 뒤 지난 16일 귀국한 우상혁은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가다가 내년 1월 초에 유럽으로 떠날 계획이다.

2월에 유럽 실내대회에서 새해 첫 점프를 하고, 3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세계실내육상선수권 2연패를 향해 도약한다. 이후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 국내 대회 등에 출전하며 파리 올림픽을 향한 담금질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이재성 폴타임' 마인츠, 강등권 탈출

분데스리가 16R 도르트문트와 1-1 무승부...2계단 상승 '15위'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사진)이 약 한 달 만에 폴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소속팀 마인츠(독일)는 리그 강등권을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마인츠는 20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1-1로 비겼다.

강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을 챙긴 마인츠는 승점 10을 쌓아 15위(1승 7무 8패)로 두 계단 점프했다.

강등권인 16~18위를 간발의 차로 벗어났다.

승점 27을 쌓은 도르트문트(7승 6무 3패)는 5위를 유지했다.

이재성은 3-4-2-1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이재성의 선발 출전은 11라운드 다름슈타트전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던 이재성은 후반 37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골대를 비껴갔다.

축구 통계 전문 풋북은 39번의 패스 중 35번을 정확하게 연결한 이재성에게 평점 7.1을 줬다.

마인츠는 전반 29분 도르트문트 율리안 브란트에게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내줘 끌려갔다. 왼쪽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브란트가 오른발로 찬 강슛은 가까운 골대 상단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

전반 31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도르트문트의 마르셀 자비치가 오른발로 살짝 띄운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 가슴을 쓸어내린 마인츠는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 균형을 맞췄다.

전반 43분 필리프 음웨네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뛰어오른 션 판덴베르흐가 헤더로 연결해 동점골을 터뜨렸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도르트문트의 골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마인츠는 승점을 지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노랑: 죽음의 바다
- 2관 노랑: 죽음의 바다, 트롤: 밴드 투게더
- 3관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 4관 노랑: 죽음의 바다
- 5관 노랑: 죽음의 바다, 3일의 휴가
- 6관 노랑: 죽음의 바다
- 9관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 7관 새내기들 노랑: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트롤: 밴드 투게더
- 8관 새내기들 노랑: 죽음의 바다, 서울의 봄, 3일의 휴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공모전시 김선희 개인전 (my little hero)

일시 : 2023-12-01(금) ~ 2023-12-31(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